

“누가 여호와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느냐”

전문가 “한미 불신 커지면 미국, 북한 선제공격”

한·미 언론, ‘올림픽 이후 美군사행동 전망’ 잇따라

동아일보는 ‘평창 이후 미-북 군사 충돌 가능성’이라는 기사를 김기호 교수(경기도 정치전문대학원 초빙 교수)의 기고문을 인용, 지난 2월 18일자로 보도했다. 김 교수는 이 기고문을 통해 미국 특수부대 및 공정부대가 4월 1일 한반도 출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군들의 증언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지난 1월 “미군이 북한과의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미군의 대규모 강습훈련이 소개됐으며, 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5, 6월 중동에 배치된 특수부대원이 한국으로 증강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한 일요일인 지난 1월 21일 한국 비무장지대(DMZ) 인근 상공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한반도 군사정찰 비행 활동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인 ‘플라이트 레이더 24’를 통해 포착됐다고 말했다. 휴일 새벽의 정찰 비행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의 김정일은 미국 및 유엔의 사상 최대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그는 한국을 탈출가로 삼은 듯 하다. 김일성·김정일 시대까지 4월 25일이던

북한군 창건일을 올해는 2월 8일로 바뀌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에 열병식을 열었다.

올림픽 휴전이 끝난 이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고려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한다면, 이는 한국을 배제한 미군의 독자적 대(對)북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 공조에서 이탈해 북한과 급속히 가까워지고 한미 간 불신이 커질 경우, 미국이 서울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상황’이다. [GNPNEWS]

여호와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예레미야 23:18)

기도 |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 땅이 위기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때 주님을 주목하도록 우리 소망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 민족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 네팔에서

거절이면

네팔 여성들은 손바닥에 하나로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메헨디’를 한다. 손목에는 ‘주라’라는 초록색과 노란색 팔찌를 한다. 미혼 여성은 좋은 남자를 만나고, 기혼 여성은 남편이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다. 인구의 87%가 힌두교를 믿는 네팔의 힌두문화다. 이 헤나 문신은 1주에서 2주가 지나면 흐릿하게 지워진다. 그러나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

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나’다.

우리는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주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였다.” 때로는 부모도 낳은 자식을 잊는다.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시며, 나를 대신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주인이다. 나는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진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다. [GNPNEWS]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금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이사야 49:15~16)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53)

병으로 죽음을 앞둔 당신에게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그동안 겪었을 고통을 어떻게 몇 마디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후회도 되고, 추억도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희망이나 소망이 없다고 해서 당신은 그저 죽음을 앞둔 병든 육체에 불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영원의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지옥이요, 다른 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죄 지은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서 영원을 삽니다. 지나온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삶의 궤모양이 어떠했던 본질적으로 거짓, 위선, 탐심, 음란, 자랑, 시기, 질투, 자기만족을 추구한 것이 당신의 삶이었습니까. 이런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

해 당신 삶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당신이 지옥 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당신에게 주신 엄청난 용서의 선물인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당신이 받던 질병의 고통을 오히려 그리워할 것입니다. 표현이 아속합니까? 아닙니다. 당신 눈 앞에 있는 지옥 앞에서 그런 감상적인 감정을 표출할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라고 변호하실 겁니



일러스트=김경선

다. 그때 당신은 면목 없지만 당당하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사가 당신을 마중 나오는 아름다운 마지막을, 아니 황홀한 천국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십시오.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 뉴스 | 아시아
중국, 한국인 선교사 50여 명 추방 2면
- 기획 |
홈쿨링, 하나님께 속한 자녀를 위탁받은 부모의 교육 3면
- 인터뷰 | 김경희 선교사
“고난을 통해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다윗을 도우셨다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아시아

중국, 한국인 선교사 50여 명 추방



▶ 2016년 3월 당시 중국 베이징의 한 가정교회의 예배 모습(출처: bbc.com 캡처)

중국 당국이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시행에 즈음하여 최근 한국인 선교사 50여 명을 추방했다.

한인 선교사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가 1월 초부터 한국인 선교사들을 조사한 이후, 급박하게 중국 조치를 하고 있다.

한 선교사는 지난 1월 중 중국 당국이 영장과 비행기 표를 제시하며 당장 다음날 중국 땅을 떠날 것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선교사는 즉각 출국을 요청받기도 했다.

이같은 선교사 추방은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정부

의 '종교사무조례' 시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효된 종교사무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삼자(三自)애국교회 소속이 아닌 가정교회에 대해 전면 폐쇄를 통보하고 예배를 차단했다. 삼자교회는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약칭이다.

새 조례는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하는 집주인에 대해서도 최대 20만 위안(3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처럼 현지 교회에 압박을 가하는 한편, 이들과 연결된 외국인 선교사들을 숙아내 기독교인들이 외국과 연계되어 표출할 수 있는 돌발적 행동을 예방하고 기독교의 중국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A선교사는 "중국 가정교회는 오히려 별다른 요동이 없다. 핍박이 오면 오는 대로 맞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핍박이 오면 사도행전 8장과 같이 오히려 복음이 확장이 될 것이라는 담대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들 가정교회 성도들은 대항하고 고발하거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교회의 인원수나 재산에 집착하지 않고 있다. 핍박이 멈추는 날까지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B선교사는 "보이는 상황은 선교 현장이 닫혀 지는 것 같지만 기도자들의 중보로 인해 주님의 방법대로 열어가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GNPNEWS]

아메리카

20세기의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 소천



향년 99세.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사진)가 소천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몬테리트의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대변인 제레미 블룸이 밝혔다.

빌리그레이엄복음협회(BGEA)에 따르면, 그는 역사상 개신교인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목회자였다. 지난 60여 년 동안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포함해 그의 설교를 들은 청중은 전 세계 195개국 중 185개국에서 2억1500만 명에 달한다. 또 그는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도전해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했다.

2005년 뉴욕 퀸즈에서 진행된 부흥회를 끝으로 설교자로서 은퇴했으며, 자신이 설립한 BGEA도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에게 물려줬다.

이후 파킨슨병을 앓아 왔으며, 2007년에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

는 사별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는 1973년 한국을 방문, 10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다. 그의 전도집회 이후 한국 교회는 급성장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NPNEWS]



▶ 1973년 열린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크루세이드 집회 전경. 3일 동안 진행된 이 집회에 약 300만 명이 참여했다(출처: 빌리그레이엄복음협회).

아시아

인도 힌두 극단주의자들, 성경 배포 차량 납치

인도 남부에서 성경과 신앙서적이 몰수되고 버려지는 등 기독교인들이 언어폭력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미국 오픈도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힌두 극단주의자들은 성경을 배포하는 차량을 납치한 뒤 성경을 불태웠으며 "기독교인들은 꺼져라. 오늘은 처음이라 그냥 가지

만 다음에는 차를 빼앗을 것"이라며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차량까지 불태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오픈도어가 발표한 2018 박해국가순위 11위인 인도에서는 성경이나 신앙서적을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도 '거짓된 수단'을 이용해 사람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려는 시

도'로 간주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반개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미국 오픈도어는 "인도의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이러한 반대 속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가진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다. 고통 받는 얼굴 속에서도 복음은 각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2.9~2.24)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캐나다서 탈북자 150명 위장 난민 신청으로 추방 위기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 150명이 난민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추방될 위기라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가 19일 보도했다. 탈북자 중 상당수가 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했으면서도 난민 신청서에는 중국을 통해 곧바로 캐나다로 건너온 것처럼 작성했기 때문으로 이런 이유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추방된 탈북자 수는 2000명에 이른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탈북한 사람들이 송환되는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무엇보다 죄의 속박에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에 빛진 자임을 기억하여 생명을 흘려보내는 캐나다가 되길 기도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고교서 총기난사 참극... 최소 17명 사망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4일(현지시간) 오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17명이 사망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 학교 출신으로 알려진 범인은 마조리 스톤튼 더글러스 고교에서 반자동 소총인 AR-15를 마구 쏘았으며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노예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가해자와 피해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길 강청합니다. 총기 규제로 인해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미국에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증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울 들어 홍콩서 독감 기승 131명 사망... 53만 명에 휴교령

홍콩에서 올해 들어 독감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금까지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3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동방일보(東方日報)가 9일 보도했다. 홍콩 정부는 어린이의 독감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춘절(설) 방학을 앞당겨 시행했으며 대상 어린이는 53만 명에 이른다.

진보한 과학기술로도 독감 하나 막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직면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넘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운명을 상기하게 하옵소서. 이 굴레를 벗어날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가 홍콩에 선포되길 기도합니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8년 3월 5일 ~ 3월 17일

3월 5일~10일

3.5~10(매일 0시~24시)

- ▶ 전남 광주 / 십자가사랑교회 (김**)010-6280-4419
-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010-5337-2771
- ▶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 (이**)010-3737-3629

3.5~6, 8~9(매일 10~12시)

-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3.5~6, 8~9(매일 10:30~11:30분)

- ▶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010-5528-5087
- 3.6~9(매일 15시~17시)
-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3.8(08시~12시)

-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3.9(10시~14시)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3.9(10시)~8(10시)

-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3월 12일~17일

3.12~16(매일 14~24시)

- ▶ 전남 광주 / 십자가사랑교회 (김**)010-6280-4419

3.12(08시)~14(20시)

- ▶ 경기 부천 / 새마음순복음교회 (최**)010-4751-0802

3.12~13, 15~16(매일 10시~12시)

-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3.12~13, 15~16

(매일 10:30~11:30분)

- ▶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010-5528-5087

3.13~16(매일 15시~17시)

-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3.15(08시~12시)

-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3.16(10시~14시)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3.23(10시)~24(10시)

-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홈스쿨링, 하나님께 속한 자녀를 위탁받은 부모의 교육

‘홈스쿨링, 세계관, 그리고 국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매체 브레이크 포인트에 기고한 기독교 칼럼니스트 존 스톤스 트리트와 G. 세인 모리스의 기고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성공적인 홈스쿨링 운동에는 반대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에게 적대감이 생기도록 끊임없이 여론을 몰아간다.

최근 미국의 여론잡지 뉴 리퍼블릭의 사라 존스 기사는 13명의 아이들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시켜 생활한 터핀 부부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홈스쿨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존스는 “터핀의 경우가 마지막은 아닐 것, 허술한 홈스쿨링이 어떻게 아동학대로 이어지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터핀의 이 끔찍한 사례는 자유롭게 시행되고 있는 홈스쿨링 때문이라며, 더 큰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홈스쿨링에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그 무엇도 없다. 학대는 교육, 육아, 교회,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한 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브레이크 포인트 동료인 세



출처: breakpoint.org



결국, 나는 세인이 옳다고 생각한다.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에 제제를 가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책임이 가족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아니다.

홈스쿨링의 성공부모와 실패부모 있을뿐

자녀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부모에게 맡겨진 것이다. 홈스쿨링이든,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그 어떠한 교육을 해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정부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그리스도인 부모는 하나님이 부여한 책임만큼 신중하게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때문에 150만 이상의 아이들에게 복된 교육적 선택인 홈스쿨링을 신임할 수 없게 하는 거짓말을 종식시켜야 한다. 대신, 무엇이 우리 사회를 깨뜨리고 학대를 만연하게 만드는지 반드시 물어보아야만 한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인 모리스는 존스의 주장에 대해 신랄하게 반박했다. “존스는 일부 홈스쿨링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는 사실이 자유민주적 홈스쿨링 법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녀의 논리를 공립 학교에 적용해보자.”고 했다.

아동학대, 홈스쿨링 때문이 아니다

세인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뉴저지 주에서 93명의 교사가 학생과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14년에는 약 800명의 교직원들이 성범죄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통계를 보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성적 학대자를 발생시켰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아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존스는 홈스쿨링에 대해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존스와 다른 지지자들 역시 홈스쿨링에 관련한 ‘규제 완화 상태’가 실제로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를 발생시켰다고 우려하고 있다.

존스는 홈스쿨링 합법적 변호협회(Homeschooling Legal Defense Association)와 같은 그룹들의 활동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홈스쿨링을 받는 자녀들이 보여주는 인

상적인 학업성취도는 무시하고 있다. 또한 홈스쿨링을 받은 아이들이 통상적으로 더 잘 교육되어 있고, 대학을 위해서도 더 준비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 또한 무시한다.

세인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배출하는 좋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나쁜 학교가 있는 것처럼 홈스쿨링에 성공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부모도 있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학교 교육을 그만두라고 요구하지 않는 한, 터핀 부부의 사악한 행위 때문에 홈스쿨링을 단속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

서서평장학금, 에녹장학금, “이런 장학금 있어요”

헤브론원형학교, 행복한 학생 및 기도와 믿음의 삶의 증인에게 지급

“이 학생은 학교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이 학생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기도의 삶에 모범을 보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믿음의 삶에 초점집중한 학생을 응원하고자 수여합니다.”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성하는 기독교 학교 헤브론원형학교가 2018년 2월에 열린 수료식에서 복음과 기도, 선교적 삶으로 순종한 학생들에게 서서평선교사장학금, E.M.바운즈장학금, 짐엘리엇선교사장학금 등 독특한 명칭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3년에 설립돼, 10대에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드리기로 결단한 청소년들을 입학생으로 받고 있는 이 학교는 2018학년도 들어 처음으로 장학금 제도를 신설했다.

학교측은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가 전교생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등록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며 안타깝게 생각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추석 무렵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소천한 고(故)안선환 교육 선교사의 유족들이 부조금을 학교

에 헌금했다.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유족들의 말을 기억한 학교측은 이 재정을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학부모와 졸업생, 동역자들이 보내온 헌금으로 다양한 장학금이 신설됐다.

봉사 영역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주변의 어려운 지체들을 몸과 마음으로 섬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서서평선교사장학금, 학과 시간 외 개인적인 자유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학생에게 수여하는 E.M.바운즈 장학금, 복음전도와 선교활동에 적극적으로 헌신한 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이기풍선교사장학금 등 믿음의 선배들의 실명을 따온 장학금이 있다.

또 올해 3기 졸업생까지 배출된 이 학교 졸업생들이 헌금해 모은 기금으로 마련한 용감한정예병장학금과 학교설립 때부터 시설관리 등으로 굵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헌신해 수고하다 지난해 추석 무렵 소천한 고(故)안선환 선교사를 기념한 안선환선교사장학금,



수료식 모습(위)과 안선환선교사장학금을 수여하는 유족 대표(아래)

이 장학금 소식을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한 교회의 헌금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에녹장학금 등이 있다.

이밖에도 십자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의 삶에 집중하는 학생을 위한 짐엘리엇선교사장학금, 학생선교사의 부르심인 학업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학생에게 수여되는 에릭리틀선교사장학금 등이 있다.

[GNPNEWS]

쿠바, 1년 동안 종교 자유 침해 325건

쿠바에서 정치경찰이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막겠다 는 이유로 크리스천 남성을 체포한 뒤,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 감시단체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세계기독교연대(CSW)는 미사엘 디아즈 파세이로가 지난해 10월 22일 체포됐으며 집에 있던 성경책 2권과 십자가와 목주 5개를 몰수당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를 “반혁명적일 뿐 아니라 또한 크리스천이다.”라면서 “혁명가인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 신은 피델 카스트로다.”라고 말했다. 피델 카스트로 전 총리는 여전히 공산주의자들의 이상으로 군림하고 있다.

파세이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처음에는 자기의 성경책을 볼 수도 없었으며 목사의 면회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의 부인인 아리아나 로페즈 로크는 19일 동안 단식투쟁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감옥에 있을 때 더 많은 권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단식을 끝냈다.

CSW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

면, 2017년 한 해 동안 쿠바에서 325건의 종교 자유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종교단체에서 보고되는 종교 자유 침해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종교단체 활동과 회원들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시도하고 있다.

쿠바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연합과 미국 및 다른 나라들은 쿠바의 종교자유와 국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CSW는 밝혔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알림

번역 동역자 모집

본지 국제팀은 객원으로 미디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동역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 3개국어로 번역팀이 가동중이다.

문의: ☎ 070-7417-0408 gnpnews@gnmedia.org

기획 | 조선선교열전 (16) - 전라남도 편

오두막에서 시작된 의료선교, 안력산병원으로 부리 내려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긴 2018년,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3주년을 맞았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티몬스와 존 A. 알렉산더 선교사

순천에서의 의료사역은 티몬스(H.L. Timmons, 김로라) 의사와 그리어(A.L. Greer) 간호사가 3평이 채 안 되는 임시 오두막에서 시작했다. 이질에 감염된 코티 선교사 가족의 치료가 계기가 되었다. 조금씩 환자가 늘어나자 이듬해 14평 정도의 진료소(순천병원)를 새로 지어 옮겼지만, 환자들을 치료하기에 협소하긴 마찬가지였다. 이 작은 장소에서 티몬스 선교사는 온갖 수술을 다 했다. 수술이 끝난 사람들은 마루에 눕혀 놓았는데, 진료소에 오는 환자들은 그들을 건너뛰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첫 7개월 동안 67명이 수술을 받았고, 3814명이 치료를 받았다. 이후 1916년 순천읍성 언덕에 안력산(알렉산더)병원이 완성되었다. 임원실 35개를 갖춘 이 병원은 당시 서울의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서양식 종합병원이었다. 안력산의 원래 명칭인 '알렉산더'



▶ 1916년 건축된 안력산병원 초기모습(출처: agoranews.kr 캡처)

는 군산 구암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했던 의료 선교사 '존 A. 알렉산더'의 이름에서 붙여졌다. 그는 1902년 12월 갓 스물일곱을 넘긴 나이에 한국에 왔다. 프린스턴과 콜롬비아 의대를 나온 그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켄터키 대부호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쏟아내기도 전에 그는 부친상 소식을 듣는다. 한국에 온 지 두 달 만이었다. 그에게는 집안의 가업과 산업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뒤따랐다. 그러나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또 다른 의미의 선교를 시작했다. 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순천 안력산 병원뿐 아니라 군산 구암병원 신축 지원, 순천 선교 부지 구입, 목포와 원근 각처에 학교를 설립하고 건축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기념비적인 사역은 사람을 세운 것이었다. **알렉산더가 세운 사람, 오공선** 당시 배재학당을 졸업한 오공선은 군산의 불(부위럼) 선교사와 알렉산더 선교사의 한국어 선생이었다. 알렉산더 선교사는 미국으로 귀국하는 배에 청년 오공선을 태웠다. 그리고 켄터키 루이빌로 데려가 의과 대학을 마칠 때까지 지원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동기가 아니었다. 오공선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가난한 이웃에 대한 긍휼이 깊은 사람이었고, 그의 인격을 익히 알고 있는 알렉산더 선교사에게 한국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더하게 하는 통로였다. 그는 이 젊은 청년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자신의 작은 도움으로 한국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 오공선은 믿음의 든든한 지원 아래 루이빌의과대학 대학원으로 진학해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내과와 피부과의 선구자로, 서재필에 이은 한국인 의학박사 2호이자, 최초의 한국인 의료선교사이기도 했다. 그는 1907년 10월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로부터 한국과 건 선교사 자격을 얻어 1908년 초 귀국해 군산 야소병원과 구암교회 예배당을 설립했고, 교육선교사업에도 관심을 쏟아 군산에 안락학교와 영명학교를 세웠다. **무상환자 62%, 끊임없는 돌봄과 희생** 주간호사 그리어 선교사는 전심을 다해 안력산병원과 환자를 섬겼다. 1927년 미국 장로교 회보에

는 이런 글이 실렸다. "간호사 그리어 양이 한국의 간호사들과 소년들을 훈련시켜 깨끗한 병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추기 위해 밤잠을 설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들의 면모는 이렇습니다... 5세 아이의 방광 결석, 무릎 관절 결핵, 척추 결핵, 폐농양으로 1쿼터 반의 고름 제거, 한약 오용으로 인한 다리 절단, 얼굴 암, 조산으로 인한 합병증... 환자들 가운데 62%는 무료로 치료받는 절대적 자선 환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즐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의사 로저스(티몬스와 윌슨 선교사)에 이어 안력산병원에 부임)에게 이 병원의 성공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1916년부터 1941년까지 운영됐는데, 일제의 강제추방령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떠나고 남은 건물은 매산학교 건물로 사용되다 1991년 화재로 소실돼 부속 격리병동만 남았다. 2018년 1월, 이 격리병동이 102년 만에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문화센터로 복원돼 재개관됐다. 복원된 안력산의료문화센터는 순천을 비롯한 호남, 대한민국의 의료역사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과 의료봉사실, 문화공간으로 꾸며졌다. <계속> [GNPNEWS] 참고문헌: <한국선교이야기>(조지 톰슨 브라운 지음, 도서출판 동연, 2010)/www.agoranews.kr 순천광장신문



선교 통신

영상 기온에도 겨울 되면 죽어가는 노숙자 속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기온이 더 낮아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곳도 지금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곳 난민들은 무방비상태로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UN과 같은 여러 기관 등에서 지원을 하지만 아무 대책 없이 도망치듯 조국을 떠난 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곳 정부는 난민을 도우려는 노력보다는 수년 내에 그들을 돌려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제한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한 NGO에 등록된 단체만 지원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고 있어서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에 한해서 기초적인 구호물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 대부

분은 식량, 식수, 의료지원이 없는 비공식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안전하게 지낼 집이 없어 축축한 진흙탕 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하루 한 번 쌀과 소금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모든 생계수단이 끊긴 상황에서 지원만을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때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위로 인해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 한 분이 1월 중순 추운 날씨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이곳은 영상 6~8도가 최저기온이지만 난방이 되지 않고 추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추위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5000여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두 명의 성도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따뜻한 모포를 나누어주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 성도를 보살펴야 할 책임감이 더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곳에는 추운 날씨처럼 영적으로도 추위에 떨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년 '이스테마'라는 이슬람 부흥회가 열립니다. 300만 명 정도가 모이는데 지난 1월에도 2주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자신도 모르는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1973년에 여의도에 열린 부흥집회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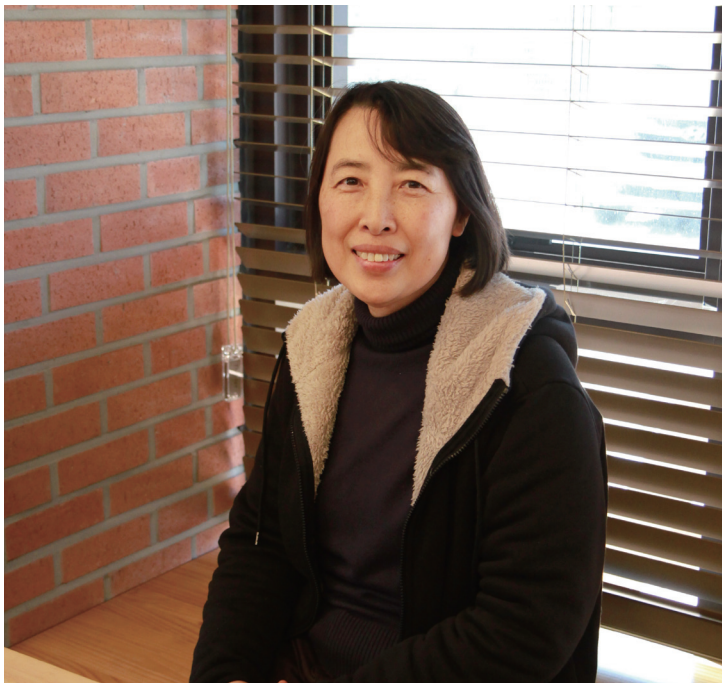
현지 자료 사진

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곳은 매년 300만 명이 모여서 이슬람 집회를 열고 헛된 우상에게 절하며 복을 비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하나님의 참 복음이 저들에게 온전히 전해져서 저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룩한 장소로 바뀌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GNPNEWS] 방글라데시= 박필우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고난을 통해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 입은 자 김경희 선교사

부러울 것이 없는 단란한 가정. 그런데 갑작스레 찾아온 병과 그로 인해 점차 뼈저터거리게 된 부부 사이. 결국엔 이혼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주님은 그 남편을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셨다. 사실은 자신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설명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됐다는 김경희 선교사. 그의 삶에 새겨진 ‘용서’. 그 사람이 그녀를 주님께 헌신하여 캠퍼스 선교사로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했다.

그녀는 헤브론선교대학교를 섬기는 교육선교사로서 지난 1년간 주방장을 맡아 섬겨왔다. 주방은 교회에서도 해보지 않았던 직업이다. 평생 직장과 가정을 오가는 생활을 했던 그를 잘 아는 교회의 배려였다. 캠퍼스이니만큼 학생들의 양육과 교제를 기대했으나 그 꿈은 시작부터 산산조각 났다.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그녀를 새롭게 빚어가셨다.

- 주방을 모두 몇 분이 섬기고 있나요?

“주방을 섬기는 선교사는 모두 3명이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주방장인데, 나중에 합류하신 한 분은 주방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였죠. 그러다보니 적잖은 갈등으로 어려웠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됐어요.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다시 알려주셨죠. 사실 이전에 나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남편을 용서하게 해주셨던 사실을 떠올려 주셨어요.”

- 지나간 시간을 조금 나눠주세요. “남편은 처음에 참 가정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결혼 생활

에 차츰 금이 갔던 이유는 신앙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시절에 선교단체를 통해 성경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졸업 할 때까지 성경책을 끼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죠.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었고 이런 제 과거의 모습을 두고 서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혼 하면 함께 교회에 가겠다고 남편. 결혼 전에도 몇 번 같이 가기도 했다. 그러나 결혼을 하자마자 약속을 깨버렸다. 절에 다니시던 시어머니 핑계를 대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다. 그런 남편을 핑계로 그녀도 역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다

“결혼하고 난 이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대학교 1학년 시절이 떠오르곤 했어요. 그때 저는 선교사로 저를 드린다고 고백했어요. 대학 4년 동안 예수님으로 인해 영혼의 기쁨을 누렸던 시간이 잊혀지지 않더군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남편 유학 때문에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미국에 가기 2개월 전에 당시 큰 아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결혼 전에 제가 사용하던 피아노를 친정에서 가져왔는데, 피아노 의자에 편지 한 통이 들어있더군요. 제가 대학생 때 부모님께 드렸던 편지였죠. 당시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살겠다고 할 때 제 뜻을 이해하지 못하시던 부모님께 보낸 것이었어요.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이유를 적었더군요. 그 편지를 읽으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너, 약속했잖아. 너 이렇게 고백했잖아.’ 저를 일깨우시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제가 쓴 편지였

지만 꼭 하나님의 편지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예정대로 미국으로 발길을 옮겨야 했다. 하지만 뒤늦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 그녀의 심령은 갈급해졌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주님이 보인다!”며 연신 소리를 질렀다.

선교사로 헌신을 선언한 옛 편지를 보다

- 가족들이 당황하셨겠네요.

“놀란 남편은 저를 큰 종합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죠. 거기서 한국인 간호사를 만나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한국이 IMF사태로 어려워지면서 미국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죠.”

-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네요.

“남편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었겠죠. 그런 와중에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2004년이 돼서야 저는 알게 됐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고민 끝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됐어요. 주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 제가 주님 품에 돌아오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후 그녀는 가장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목마름은 여전했어요.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대학생 때 이미 삶을 드린 공동체를 경험했기에 나름대로 기준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된 삶을 보기는 쉽지 않았죠. 그러다 어떤 집회에 참석해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실 것 이란 말씀을 듣는데 선교사로 삶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일이 기억나더군요. 그때가 2014년인데, 교회에 새로 부임한 여전도사님이 저에게 복음훈련 하는 곳을 추천해주었어요. 잘 모르지만 주님이 길을 여셨다고 믿고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제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제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기뻐했어요.”

- 그런 깨달음으로 누리게 된 은혜가 있으신지요?

“1년 후, 남편과 화해하는 시간을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남편이나 저나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됐어요. 주님은 저 역시 마음으로 간음했던 자임을 인정하게 하셨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음란한지 상황만 되면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이 인정되더군요.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직 주님께 돌아올 때

가 아니라고 했죠. 주님은 그런 만 남까지만 허락하셨어요.”

- 놀라운 일이네요. 이후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사실 복음훈련을 마치고 바로 공동체신앙훈련을 받으려고 했어요.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훈련을 준비했죠. 그런데 면접을 하면서 제가 훈련을 받을 준비가 안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중보기도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반년이 지나 재도전해 공동체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는 정말 복음을 실체로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공동체훈련을 마친 이후에 해외선교를 꿈꿨는데 주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달랐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고 잠을 잘 못자면서 또다시 예전 그 정신적 증세가 나타나려고 했어요.”

나의 죄인 됨을 인정하게 되다

-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여러 방해가 있었군요.

“이런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어요. 제 상황이 크게 보 이더군요. 큰 아들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직 그런 은혜를 잘 모르는 작은 아들이 걸렸죠. 이 상황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지를 못했죠. 결국 파송단체에게 얘기하고, 다시 순종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 마음을 붙잡아주셔서 국내와 국외 어디로 부르시든 순종할 것을 고백하게 하셨죠. 그렇게 순종하여 오게 된 곳이 바로 헤브론선교대학교였어요.”



▶ 해외 아웃리치 중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

- 순종을 선택하기까지 쉽지는 않았군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선교사는 해외에 가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선택을 주저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보니 분명해지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주시며 기도하게 하셨던 예전의 고백을 되살려주시더군요. 제가 80학번이예요. 당시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함께 성경공부도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사람 말을 듣는 것 자체를 거절하죠. 이런 캠퍼스의 상황을 들으며 캠퍼스가 곧 열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큰 아들에게 의

견을 물어보았죠. 아들은 “주님이 부르셨네요. 캠퍼스 비전은 엄마가 기도했던 거잖아요.”라고 했어요. 주님은 말씀으로도 약속해주셨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 1:16) 이 말씀을 주시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 그렇게 오셔서 맡은 직임이 주방이셨군요.

“처음 한 달 반 동안 정말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원했고, 칭찬을 듣고 싶었던 제가 드러나고 죽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물으셨어요. ‘무얼 좇아 왔니? 영생의 말씀을 좇아 왔니? 그럼 어떤 자리든 아멘이냐?’ 비로소 주님이 불러주신 가장 완전한 자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그때부터 실제로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 어떤 경험을 통해 부르심을 확정하셨는지 듣고 싶네요.

“지난 1년은 처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시간이었어요. 그전까지는 일을 하면서 제가 벌어서 살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재정을 주님의 공급하심에 맡기고 살아야 해요. 마음속으로 ‘아르바이트라도 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를 두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일까?’ 그런 과정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셨어요.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정

말 은혜였어요. 함께 있는 지체들이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내면에서는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지체들에게 재정을 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베풀면 베풀었지 남에게 받기 싫어하는 나의 자아가 죽는 시간이었죠.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받고 쓰면서 자녀에 대해서도 주님께 맡기게 됐어요. 큰 아들도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고 했죠. 작은 아들에 대해서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언약갱신 (3)

하나님은 무능한 다윗을 도우셨다

다윗왕국은 하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드러낸 왕국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 속에서 나타난 기적이었다. 다윗의 가능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다윗을 부르셨다. 목동을 왕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원수를 아들로 삼으시는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였다. 이 부르심을 따를 때 필요한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

어린 아이의 눈에 부모는 전능자 이듯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랬다. 그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다. 이 일은 다윗을 다윗 되게 해주는 사건이 되었다.

이스라엘 중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가능성으로 골리앗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골리앗 앞에 선 하나님 나라의 대표, 다윗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주목하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 나갔다.

그는 양을 치던 들판에서 사자와 꿈을 물리치며 자신에게 능력이 되었던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에게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신의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달려갈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다.

자신의 절망이 결론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

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다. 그가 비록 존재적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자신의 목자요, 아버지임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이다.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계산을 결론으로 삼지 않았다. 그는 넘어졌을 때조차 넘어진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결론으로 삼았다.

하나님을 결론으로 삼으라

하나님은 그런 무능한 다윗을 도우셨다. 다윗 왕국은 그와 함께한 용사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서만 세워질 수 있는 왕국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대하 11:10). 무수한 죽음의 고비와 실패, 그리고 치명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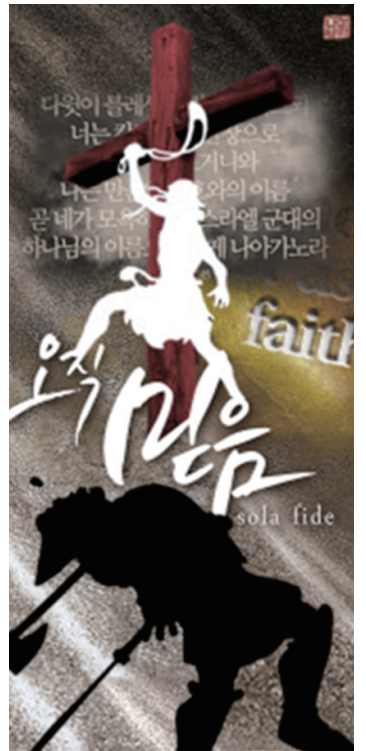
죄에 빠졌던 다윗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말미암아 가능한 인생이었다.

주님께서 당신의 선한 손길을 '사람'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다.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미갈, 제사장, 아달람 동지들,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개국공신이 되었다.

오직 주의 크신 은혜라는 말 밖에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2016년 8월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일러스트=임이량

복음도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2017 다시복음앞에**
강의 수록 USB 발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롬 1:17

RETURN the '오직 믿음으로'
GOSPEL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5대 강령 중 "오직 믿음" 주제로 진행된
2017 다시복음앞에 집회 강의영상과
헤브론원형학교의
성경입체낭송 "로마에 온 편지" 영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강의 수록 USB(1개) 25,000원

복음의 삶을 위한 소식지 시리즈 2
Life in the Gospel

이 전도지는 누구든지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수 있는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쉽게 들고 다니며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도지 규격 : 182X157mm(B5사이즈)
가격 : 100매(10,000원) 이상 주문 가능

구입문의 야긴과 보이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이젠 뒤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영광이에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삶,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항상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의 삶인 것이죠.

- 실제 상황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군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주님 떠나면 나는 죽음이다.' 이것을 알게 하셨죠. 나를 부인하면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매 순간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 저를 부인하는 거죠. 나의 옳음,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거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더군요."

- 끝으로 지나온 삶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섬세히 알고 계신다고 믿어요. 삶을 돌아보면서 굴곡 없이 달려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젊은 나이에 헌신한 지체들을 보면 부러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이 가장 완전한 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소망, 기쁨이시라고 완전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까지 주님은 기다려주셨어요. 이런 고난을 통해, 머리로만 알았을 주님을 가슴으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각자를 부르시고 세워가세요. 저의 서원을 주님이 이뤄주셨죠.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역지로 하지 않으셨죠. 지금이 저를 선교사로 쓰시기에 가장 완전한 때라고 믿어요. 이젠 뒤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세상 미련에 얼마나 뒤를 돌아봤었는지요.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내 삶이었는지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사명을 회복해 주셨어요. 저는 오직 '네, 주님.'이라고 말할 것 밖에는 남지 않았네요."

[GNPNEWS] L.S.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자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전에 아무리 잘 했어도 오늘은 오늘의 믿음을!”

6개월 전 중보기도학교에 입학하기 전과 지금의 나는 마치 다른 사람 같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스물여덟 살까지 죄와 수치로 얼룩진 삶을 살았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된 삶을 청산한 후 가정을 이루었지만, 남편과 헤어지고 세 아이와 친정에서 살면서 또다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었다. 얼마이기 싫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결국 술과 담배와 점 보는 전화에 중독된 노예였다.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산 삶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맛본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자녀로 택하셨다는 확신에 눈이 짓무르도록 울었다. 주님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도다”(시 2:6~7)는 말씀으로 불러주셨고, 곧바로 선교사로 헌신했다.



그리고 기도훈련학교에 입학했다. 매년 나의 옛 생명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로 가야 하는 뼈아픈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후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벅찬 시간이기도 했다. 학교의 마지막 과정인 아웃리치는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주님의 응답으로 가게 된 P국 아웃리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기억이 되었다.

L시에서 이 나라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주셨

다. 이후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해 주셨다. ‘그 날의 영광’에 대한 열망을 주시라고 울며 가슴을 치던 기도와, 마음에 한이 되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드렸던 기도를 잊지 못한다. 누구를 도우려고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를 살려 주시려고 보내신 아웃리치였다.

오늘 복음에 부딪쳐야 한다

그러나 훈련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 말씀묵상은 물론 매일 드리는 열방을 위한 기도도 하지 않

게 되었다. 아웃리치 때 못했던 과마를 하고, 눈가와 이마 주름을 펴는 주사를 맞고, 예쁜 옷과 신발을 고르느라 몇날 며칠 핸드폰으로 쇼핑을 했다. 배고프면 딸과 밖에 나가 음식을 사 먹고, 카페에 가서 핸드폰으로 또 쇼핑을 했다. 술과 담배, 점만 안 볼 뿐이지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 것으로 꽂차 있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 보았다. ‘복음 만나기 전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점 보고, 꾸미고 나가서 놀러 다니고... 다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렇게 살 때 행복했어?’ 묻고 보니 ‘아니, 절대로 아니야. 그럴 순 없어!’가 답이었다.

이전에 주님께 헌신한 것이 오늘 내가 복음으로 사는 데 보장이 되어주지 않았다. 오늘 복음에 철저히 부딪쳐야 했다.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되었듯이 매일 나는 망하고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셔야 했다. 이 심판과 구원이 매 순간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믿어졌다.

난 여전히 사탄에게 공격당하고,

유혹받으며, 작은 시련과 고난에 힘들고 지치기도 한다. 화를 내고 낙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축복인 걸 믿는다. 내가 넘어질수록 더 주님만 소망이 되기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외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이면 다시 선교훈련을 받게 된다. 이전보다 더 떨어진 지역에서 열리는 다음세대들의 선교훈련에도 주님이 불러주셨다. 전처럼 시간과 돈과 여유를 가지고 자아승배하는 게 내 목표가 될 수 없다. 내 인생의 목표는 주님이다. 주님이 계시므로 자격 없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내 존재의 영광이다. 주님만 기대한다. [GNPNEWS]

윤시내 집사(선한목자교회)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미 대통령 만난 탈북민 지성호씨, 북한인권 관심 일으켜

북한인권운동단체 ‘나우’ 창립해 탈북자 구출운동 펼쳐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 국정연설 도중 ‘꽃제비’ 출신 장애인 탈북민 지성호(36)씨의 사연을 소개한 이후, 전세계에서 북한인권과 탈북민의 삶에 새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함경북도 회령시 출신인 지씨는 10대 초반, 달리는 기차에서 장터에 내다 팔 석탄을 훔치던 중 왼쪽 손과 다리를 잃었다. 마취 없는 수술과 생사를 넘나드는 수 개월간의 고통을 견디다 아버지가 만들어 준 목발을 짚고 탈북에 성공했다. 그리고 중국 대륙을 남하해 동남아 정글을 뚫고 1만km를 이동해 자유를 찾아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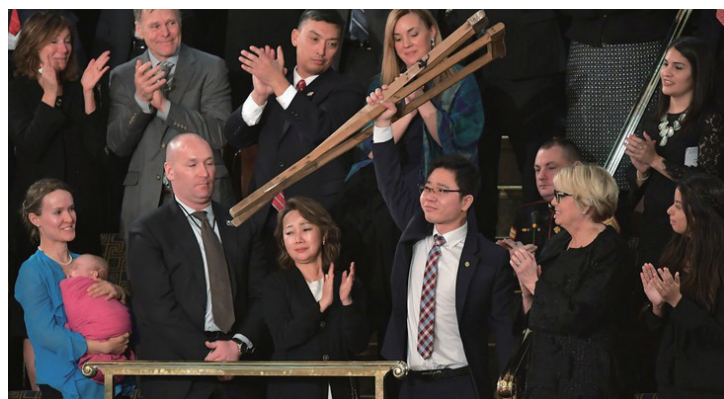
현재 북한인권운동단체 나우(NAUH, Now Action Unity for Human rights) 대표로 활동하며 북한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탈북민 구출운동을 벌이고 있다. 나우는 지난해 미국 하버드, 프린스턴, 조지워싱턴대학 등에서

북한인권 강연회를 열었다. 2016년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오슬로자유포럼’에서 세계 각국의 인권운동가 300여 명 앞에서 북한인권의 실상을 소개했다. 탈북동포 구출운동은 주로 중국 내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로 지난 7년간 270여 명을 입국시켰다.

지씨는 최근 국내외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과 북한인권 문제에 이토록 관심을 보인 지도자는 처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으로 북한인권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체제의 근본적 문제는 인권말살에 있고, 탈북민들은 인권말살의 살아있는 증인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북한 정권에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씨는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 이후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언론과 인권단체에서 많은 연락이 오고 있다며,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인권



▶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소개된 탈북민 지성호씨(출처: wibc.com)

대책 강화는 물론 자신의 경험을 영화화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면, 그는 “이것이 일시적 분위기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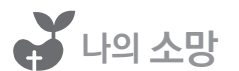
지씨는 대한민국 입국 이후 2009년 28살 때 동국대 회계학과에 입학했다가, 북한인권운동을 하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법학과로 옮겨 현재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다.

지씨는 최근 북한 내부사정과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물자가 모자라고 중국에 내다팔던 물고기나 광물 등

도 제값을 받지 못해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김정은이 집권하고 5년이 지났는데도 형편이 더 어려워지니 주민들도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20~30대인 이른바 ‘장마당 세대’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 이들은 한국의 대중문화에도 익숙하고, 더 이상 외부세계에 대해 폐쇄된 세대가 아니며, 북한의 미래도 결국 이들의 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씨는 앞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우리 대통령과도 북한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GNPNEWS]



시냇물에서 온 세상으로 퍼지다

옥스퍼드대학의 유명한 학자로 14세기 ‘개혁의 샅별’로 불리던 위클리프는 복음의 능력을 버린 교회를 질타했다. “교황도 죄인이다. 교회의 법률은 오직 성경 뿐.”이라고 외친 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기쁨을 맛보게 했다. 부조리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자, 교회는 그의 롤라드운동 때문이라며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다. 사후에 파문 당한 그의 시체는 무덤에서 파내져 그의 책들과 함께 불태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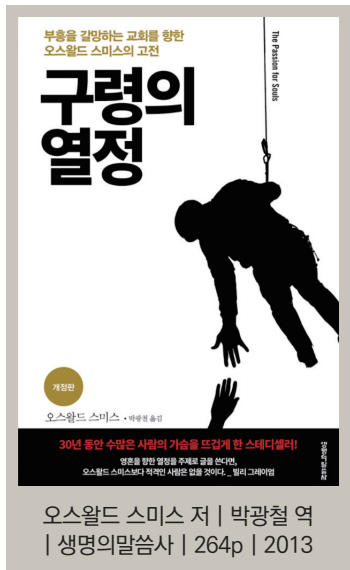
“그의 뼈는 불태워져 시내에 던져졌으나, 시냇물은 그 재를 이 강에서 저 강으로 다시 그것을 좁은 바다로, 좁은 바다는 다시 큰 대양으로 흘러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신조(信條)의 상징인 재는 이제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 [GNPNEWS]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오스왈드 스미스 <구령의 열정>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한 기대와 갈망으로 준비하는가?



성령의 임재와 부흥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부흥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영국, 미국, 중국, 한국, 인도,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 부흥의 책임을 느낀 복음전도자 웨슬리, 찰스 피니, 무디, 청교도들과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 부흥은 가시화되기도 했다.

그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한 기대와 갈망으로 준비하는가?

이 책을 읽으며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 복음을 외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선교완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나의 삶이 복음의 역사와 부흥에 전적으로 헌신되었는가? 성령의 부으심으로 밤낮으로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는가? 책을 읽는 내내 끊어오르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셨다.

부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행위의 결과나 그저 우연히 하나님이 주시면 받게 되는 은혜로 부흥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 저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부흥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존재 안에 끊임없이 드러나는 수많은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

부흥의 현장에서 죄에 대한 진지한 각성이 수많은 사람들의 통곡과 눈물,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실제적인 죄 고백과 회개로 이어졌다. '주여!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가슴을 도려내는 비통함과 죄의 무거운 형벌로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울부짖는 자들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놀라운 해방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해방감

또한 부흥의 시작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위로부터 능력받기를 구하며 온몸이 땀에 젖도록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통 중에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흥의 역사에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었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기도할 때 기도의 장애물이 되는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용서치 않음, 화냄, 질투, 교만, 부정직, 비판, 도적질, 세속적, 불신, 경솔함, 천박함, 걱정, 염려 등)가 처리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결코 역사하지 않으신다.

저자는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며 설교자가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놀라지 않는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대도 없고 어떤 믿음의 시도도 없는 기도와 복음의 설교가 얼마나 이상하고 어리석은 것인가! 기도는 믿음의 기도요, 기대가 있는 기도여야 한다.

믿음의 기도, 기대하는 기도

교회가 영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고통 받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의 위대한 소명, 복음전파로 주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도 이 일을 위함이다. 추수할 것이 한없이 많은데 모든 기회를 얻어 열방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도록 계속 복음을 전파하자. 주의 오심이 가깝다!

이 책은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부으심, 죄를 깊이 깨닫는 진정한 회개, 생명을 낳는 고통의 기도, 그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현장에서 한 번에 수 백, 수 천명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는 수많은 사례와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었다. 내 영혼이 그토록 목마름으로 갈망하던 현장을 보게 되는 기쁨이 충만했다. 어느 순간 안일하고 열정을 잃어버린 내 무감각한 심령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부흥의 불씨를 친히 성령으로 부으셨다. 생명 다한 증인들과 같이 간절함으로 사모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GNPNEWS]

우미영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고통하시고, 함께 가시는 주님을 만나다

허리디스크로 시술을 하고 난 후 6개월 동안 쉬면서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힘'하면 공동체에서 인정해 주는 나였는데, 예상치 못한 진단을 통해 이전과 다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이지만 아무런 사역을 할 수 없었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당연하게 감당했던 식사당번도, 노동도, 청소도, 너무 쉽게 했던 일상의 모든 일에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고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음의 공격이 찾아왔습니다. '너 선교사 맞아?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달리고 있어?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서 있어?' 이것은 때때로 나를 멈추게 하고, 달려 넘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온 열방을 살리는 예수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으로 헌신한 걸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드러진 내 삶은 전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만한 삶이 아



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체의 회복을 위해 의사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절대 하지 않고 잘 지키는데, 제게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사 56:7)

쉬면서 더 자주 가게 된 기도실에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런 내가 무슨 만민이 기도하는 집 입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 안 되고, 나 자신도 감당 못하는데..." 그렇게 나를 연민하며 원망하듯 내뱉은 말이 되려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다 까먹고 여전히 내 행위와 내가 하는 일에서 정

체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외치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라는 이름을 얻어서 복음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 때 주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주었잖아!' 이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 그 사랑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이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 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 날까지 지켜주시네~" 이 찬양의 고백은 내 아픔을 알아주시는 정도의 감동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이 사랑으로 충분한 내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내 기도로 만민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저 나는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고통하시고 함께 가시는 주님을 알아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삶이 예배이고 증거였습니다.

아파서 신음하며 주님만 불러도 다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얻었고, 누구에게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모르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 이 사랑 알게 해 주세요. 저를 만나 주신 것처럼 만나주세요. 이 사랑이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을 고백할 수 있어요." [GNPNEWS]

신미성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8. 2. 1 ~ 2. 21 (가나다 순)

개인

강은진 강중재 권혜령 김경선 김사회 김선희 김수미 김유남 남영신 박성규 안민자 안병윤 안수경 안현숙 유자인 윤경석 이정희 이복길 이성대 이은주 이인영 이정희 이준진 이지영 이진희 임종태 임향주 정진미 조상국 조형광 차인순 최근희 하은숙 한승남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김포전원교회 마하나임교회 망우제일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새순교회 샘물교회 쉼 양덕원감리교회 은혜선일교회 전주은혜샘교회 주만교회 죽전교회 참종앗다라교회 춘천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